

협동농장 1년한번 쌀가마니 배급

한반도에도 통일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나 북녘 동포들의 생활상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동안 북한방문단과 해외교포, 귀순자들을 통해 단편적인 실상만 전해졌을 뿐 북녘의 삶과 애환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국민일보는 북녘 동포들의 실제 생활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87년9월부터 91년8월까지 4년동안 舊소련의 타스통신 평양특파원을 지

낸 자하르첸코 이완 타스통신서울지국장의 북한 풍물기를 독점으로 연재한다. 남과 북을 동시에 체험한 제3국인인 자하르첸코지국장은 모스크바종합대 한국어과와 김일성대학을 마친 중견언론인으로 타스통신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다. 제3국인의 눈에 비친 북한 주민들의 주거생활 식생활 결혼풍속 명절 여가생활 외국인생활상등을 시리즈로 엮는다.

일인지 북한의 집들은 대부분 방문과 창문을 하늘색 페인트로 칠해 놓고 있었다. 벽과 천장을 연한 색의 벽지로 바른 3평 정도의 방에는 황색장판이 깔려 있고 온돌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기분 좋게 방안을 채웠다. 주인은 방구석에 있는 중국제 재봉틀위에 TV를 올려 놓았다. 방안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밖에서도 들어 갈 수 있는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했다. 부엌안의 다른 문을 열고 무릎 꺼내 널판지 마루에 앉아 무생채를 만들고 식초를 조금 넣었다. 그다음 배추와 명태 한마리를 넣고 밥하는 큰 냄비 뚜껑을 닫았다. 그때 조만수씨의 모친은 침실로 통하는 문뒤에서 검은 페인트칠을 한 동근 상을 굴러와 방 가운데에 놓았다. 내가 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농장 지배인은 자책적으로 만든 막걸리를 한병 가져왔다.

“이런생활방식 익숙하다”

우리는 상앞에 마주 앉아 수확배급금을 축하하며 잔을 주고 받았다. 북한에서는 막걸리를 대부분 옥수수로 만든다. 조만수씨는 잘 사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 있으니 잘 산다』고 대답했다. 그렇다. 북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방식에 익숙해 있다.

북한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특히 기자들은 취재를 위해 일반 국민을 만나거나 접촉하는 게 매우 어렵다. 담당 국가기관

필자가 찾아간 황해도 재령군 소재 조만수씨 집. 방안 재봉틀위에 TV가 올려져 있었으며 갖은 전등이 인상적이었다.

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알아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사람이나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자신들의 「마당」을 잘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타스통신사 평양특파원으로 4년동안 근무했으나 이 기간중 도시의 아파트나 시골집을 방문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는 동안 「마당」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나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다. 자동차를 타고 평양에서 개성으

타스통신 前평양특파원이 본

북한의 풍물



<1>



타스통신 서울지국장

자하르첸코 이완

로 가다보면 사리원을 지나 오른쪽에 재령군이 있다. 이곳에 있는 삼지강협동농장은 재령군에서 제일 크고 성공적으로 개발된 곳이다. 바로 이 농장에서 조만수씨 가족을 만났다.

허가받아야 民家취재

그는 겨울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마을주민과 함께 마을 중앙광장에 모여 중요한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은 88년의 수확배급날이었다. 이날 「모범농장」인 삼지강농장에는 소련·중국기자들이 초대되었다.

광장 집회소 옆에는 쌀가마니가 산처럼 우뚝 솟아 있고 「주체농법만세」라는 큰 간판과 김일성주석의 대형초상화가 가마니더미 앞 중앙에 걸려 있었다. 황색 옷을 칠한 책상앞에 서 있던 호남순 농장지배인은 농민들에게 치하한뒤 배급의식을 시작했다. 농장원들은 한명씩 별로 크지 않은 목재연단으로 나가 당위원회 비서로부터 마분지로 만든 작은 상자를 받았다.

나는 상자를 하나 열어 봐 달라고 부탁해 그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북한돈 약 3천원이 들어 있었다. 이외에도 각 가정은 알곡보급으로 쌀을 수십가마니

까지 받았는데 다음해까지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했다.

조만수씨도 다른 주민들과 같이 상자와 알곡을 받고 모범농부로 선전돼 대동강이라는 상표가 붙은 흑백TV를 공로상으로 받았다. 나는 북한외교부 사람에게 농민집을 하나 찾아보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다른 기자들이 평양으로 되돌아간 다음 허가를 받고 조만수씨 집을 방문할 수 있었다.

김일성주석이 몇번 몸소 방문했다는 그 협동농장에는 한식기와집과 2층짜리 푸른색 연립주택이 몇채 있었다. 조만수씨

가족은 그중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집에서 주인을 기다리자 그는 「승리」라는 낡은 화물자동차의 쌀가마니 더미위에 앉은채 상으로 받은 TV를 두손으로 안고 마당입구로 들어왔다.

벽엔 유명배우 사진부착

차에서 내린 그는 악수를 한 뒤 집을 안내했다. 조만수씨의 집은 다른 기와집들과 비슷하게 7자형으로 건설된 것이었다. 주인이 격자를 끼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웬

눈에 띄는 것은 갖없이 늘어진 전등이었다. 왼쪽 벽에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주석과 그의 아들결 후계자인 김정일씨의 초상화가 두개 걸려있고 작은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창문옆 벽에는 「조선영화」라는 잡지에서 찢어낸 북한의 유명한 배우들의 사진이 여러장 붙어 있고 방입구 오른쪽에는 레이스로 만든 틀에 거울이 걸려 있었다. 그 외에는 검은 전기스위치가 있을뿐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조만수씨는 모친 부인 중학생 딸 아들을 소개시켰다. 부인은

의 승인을 얻어야만 모든 면담이나 취재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외교부 보도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외국기자는 규칙에 따라 취재를 금지당한다. 기자가 평양이나 다른 지역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은 역시 말을 하지 않는다.

북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잘 모르니까 자신들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일까. 북한에서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그 실상을 100% 알 수 없다.

黨간부가 3천원돈 종이상자 나눠주기도

모범농민에 흑백TV賞... 옥수수막걸리 손님접대
기와집農家 방안에 재봉틀-거울-갖없는 전등만